

지역 소식통

고창군, 농특산물 신메뉴 디지털·음료 예선 발표

전북 고창군에서 실시한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음료·디지털 신메뉴 공모전'이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서 음료부문 17개 작품, 디지털 부문 37개, 총 54개의 다양한 작품이 응모됐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고창의 대표 농특산물인 복분자, 메론, 딸공, 보리 등을 활용하여 음료, 케이크, 푸딩,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디지털과 음료가 접수됐다.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공모전 지원자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전문가를 조차 깜짝 놀라게 하는 작품들도 있었다.

이번 공모전은 13일 제과기능장, 음식 명인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사위원이 심사해 10개, 디지털 10개의 후보작이 선정됐다. 오는 20일 현장에서 직접 시연심사를 받게 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대상 300만원, 금상 150만원 등 총 1000만원 상금이 주어진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29일 역광장서 할로윈 파티 진행

정읍 최초의 주민참여형 할로윈 축제인 현지시장과 함께하는 할로윈 파티가 오는 29일 연지동 일원과 정읍역 광장에서 열린다.

정읍 리본(Re:bom)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위원장 이재운)가 주최·주관하고 정읍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상인들과 시민이 직접 참여해 현지시장을 알리고 친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축제는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된다. 행사에서는 할로윈 컨셉의 출연진들이 시내 파리바게트를 시작으로 중앙로를 지나 정읍역 입구까지 좀비 플래시몹의 길거리 퍼레이드를 선보이며 상가 활성화와 도시 재생 활성화를 기원한다.

또 다채로운 기획공연과 귀신 가요대전, 먹거리 체험 어린이 베틀시장, 정읍 도시재생의 어제와 오늘 전시·홍보 등이 운영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초읽기

10월 조래안 상정... 2023고창방문의 해 연계한 TF·실무협의체 담례품 개발 착수

'고향사랑기부제' 본격 시행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고창군 고향사랑기부제 TF추진단'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고창군은 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난 17일 노형수(부군수) TF팀 추진단장 주재로 '고창군 고향사랑기부제 TF팀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고향사랑기부제 TF팀은 총괄지원팀과 모금홍보팀, 기금사업발굴팀, 담례품발굴팀 총 15명으로 구성돼 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선 기부자들에게 증정할 담례품 개발과 홍보 방안, 기금사업 발굴 등과 관련된 다양한 발전방안



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액의 30% 이내로 담례품 제공이 가능하다. TF추진단은 기존 오프라인 홍보방을

총 가동한데 이어,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에도 집중하고 있다. 또 고창군만의 경쟁력, 차별성 있는 담례품을 발굴·개발해 출향 향우뿐만 아니라 지역을 찾는 관광객도 기부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에 따른 아이디어를 지속 발굴한다.

고창군청 노형수 부군수는 "2023고창방문의 해"를 맞이하는 고창 지역사회의 재정 확충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상생의 제도다"며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TF팀이 솔선수범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단풍철 맞아 안전·쾌적한 관광 여건 마련 '총력'

정읍시 행정 질서 최종보고회

정읍시(시장 이학수)가 가을 단풍철을 맞아 올바른 행락문화 정착과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 여건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단풍철(10.23~11.14)에는 16만7천 명 이상의 많은 탐방객이 몰렸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해제로 더 많은 관광객 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내장산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제공을 위해 지난 18일 단풍철 행락 질서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는 이학수 시장을 비롯해 정읍경찰서와 정읍소방서, 내장산국립공원, 내장사, 내장산 상가변영회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관련 기관별 세부 추진 계획과 함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관광객 이용 편의와 관광 이미지 제고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는 지역의 관광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5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13일까지를 단풍철 행락 질서 확립 기간으로 정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곰소왕젓갈 이상애 대표, 치유식품 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곰소왕젓갈 대표 이상애씨는 지난 16일 양평군 두물머리 생태학교에서 개최된 대장급 선발 '대한민국 치유음식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전순의 기념사업회와 경기도 한의사회 공동으로 선발하는 대장급 교지를 수여받았다.

이상애씨는 두 자녀와 함께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한방약선 장류부문으로 부안대표 농산물인 뽕을 활용한 '뽕잎쌈장젓갈'로 금상을 수상하고 자녀 현재는씨는 한식부문으로 '연잎밥'과 '오디식혜', '뽕잎장아찌'로 대장



급으로 선발되어 대장급 교지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자녀 현재는씨는 '뽕잎떡갈비'를 출품하여 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22 대한민국 치유식품 경연대회는 농식품부 산하 사립법인 대한민국치

유식품진흥회와 전순의 기념사업회 한국장류발효연합회가 공동 주최하는 권위와 명예가 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치유식품 경연대회로 부안 이상애씨가 가족의 최우수상과 대장급 교지 수여는 부안군의 경사이며 부안 치유음식의 위상을 드높였다.

이상애씨는 2021년 부터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지역농산물가공교육, 2022년 우리쌀 활용 전문교육, 치유농업교육을 이수하여 부안 농산물의 우수성과 치유음식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배웠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신정동에 소재한 정읍첨단과학관에서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과학체험 특별 전시회 가 진행된다.

누리호 발사과정 한눈에 본다

정읍 첨단과학관, 이달 21~30일까지 과학체험 특별 전시회 열려

정읍시 신정동에 소재한 정읍첨단과학관에서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과학체험 특별 전시회 가 진행된다.

정읍시가 주관하고 한국과학관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2022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전시콘텐츠 공동 활용 순회 전시형 체험행사다.

체험행사를 통해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실제 발사 운용 과정을 알아보고, 기후변화를 주제로 다양한 과학 현상을 경험해 볼 수 있다.

누리호 발사 임무 체험은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의 발사에 시스템과 발사체 시스템이 간략하게 구현된 공간에서 누리호의 발사과정을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또 명화를 활용한 기후 위기 체험은 김홍도의 눈길, 몽키의 짚구 등 우

리에게 잘 알려진 명화에 분사기로 물을 뿌리고 붓으로 색칠을 하는 행위가 디지털로 제작된 명화에 반영되어 그림 일부가 사라지거나 색이 바뀌는 등의 과학 현상을 눈으로 확인하는 콘텐츠다.

순회 전시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하거나 체험할 수 있다.

체험 후 과학 퀴즈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는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 전시회를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첨단과학에서 과학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기후 위기 의 심각성을 공감하며 생활 속 실천에 앞장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사례 8건 선정

부안군은 지난 18일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규제개혁 우수사례 8건을 선정했다.

전 부서에서 27건의 규제개혁 건의 과제가 발굴되었고 각 분야별 팀장 6명의 1차 심사를 통해 총 8건의 과제가 본선에 올랐으며, 규제개혁위원회가 창의성·노력도·과급성·발표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발표심사를 진행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심사결과 민원과 송재홍 주무관의 '소규모 육묘장 지원 사업 위한 규제 완화'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사례는 소규모 육묘장 설치 시 600㎡ 이상인 토지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형질변경) 대상에 해당되어 발생하는 설계비 부담을 완화

하고자 규제개선을 제안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은 해양수산과 최인호 주무관의 '수산관련 인허가 신청 시 실현 불가능한 구비서류 첨부 폐지', 재무과 김소진 주무관의 '공동명의 자동차 압류 시 압류 통지서 통보대상 확대', 장려상은 환경과 김태양 주무관의 '지방보조사업 이차 정산 의무 완화', 동진면 고혜인 주무관의 '행복택시 운행 방법에 이용자 직접 신청 절차 신설', 농기센터 김병두 주무관의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사업 지원지역 확대', 입선은 건설교통과 서재필 주무관의 '법 개정을 통한 생수 유통 안전성 강화', 백산면 장미현 주무관의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폐기물 지원순환 사업'이 선정됐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